『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

-권8, 03:04-04:11 부분을 중심으로-

장경준**

요 약

이 글은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연구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 35 위치에 현토된 단점 형태의 구결점이 구결자 'ㅎ'에 대응되는 것임을 논의한 다음, 『유가사지론』 권8의 03:04-04:11 부분에 대한 잠정적인 해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핵심어: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구결점

1.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자료의 판독 및 해독 방안의 기록은 잠정적으로 다음의 방식을 따라 하기로 한다.[1)]

---

*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2년 11월 2일, 11월 30일, 12월 28일)에서 배포한 강독 요지문을 간추린 것이다. 월례강독회 당시의 논의 이후 필자의 견해가 약간 바뀐 부분이 없지 않으나 새로 이 글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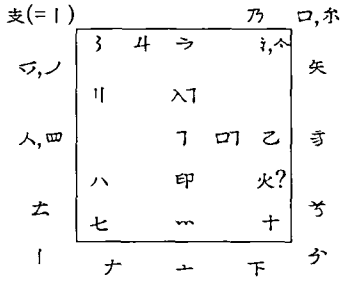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1) 원래 강독회의 강독 요지문에는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기록 방안을 제시하였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좀더 보완하여 자세히 기술한 것이 있으므로(장경준 2003ㄴ) 구체적인 것은 그것을 참조하기 바란다.

A: 원문에 현토된 구결점과 부호를 판독한 결과
B: 현토된 구결점의 대응 구결자 표시(<그림 2> 참조)
C: 자토석독구결문으로 재구성한 결과
D: 구결문에 의거하여 현대국어로 축자역한 결과(괄호 안은 해당 부분의 역경원 번역임)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그림 1>
구결점의 잠정 표시 위치



<그림 2> 단점의 추정 점도
(기준 위치와 대응 구결자)

이상의 표기 원칙은 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제안한 하나의 방안일 뿐이다. 특히 해독 과정의 핵심 단계인 A와 B의 표기안은 <그림 2>와 같은 '단점의 점도' 및 한자의 자형에 따른 '구결점의 위치 변이'를 전제한, 즉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가설에 기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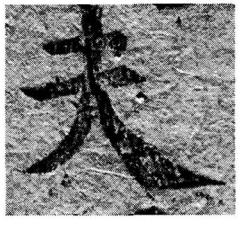
이른바 '단점의 점도'는 먼저 이 자료에 현토된 단점 형태의 구결점들을 판독하고, 판독된 단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들끼리 분류한 다음, 분류 결과 서로 변별되는 것으로 파악된 각각의 단점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삼은 사각형에 표시한 것이다.

또한 이른바 '구결점의 위치 변이'는 기준 사각형 위에 정해진 구결점들의 상대적이고 추상적인 위치인 기준 위치, 즉 점도상의 위치가

현토 과정에서 현토 대상 한자의 자형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치인 변이 위치, 즉 실제 현토 위치로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위치 변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토된 구결점들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들끼리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점도의 파악과 구결점의 위치 변이에 대한 이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성격의 일이라 할 수 있다.(장경준 2002 참조)

오늘 강독할 부분에서는 열 가지 종류의 번뇌(薩迦耶見, 邊執見, 邪見, 見取, 戒禁取, 貪, 恚, 慢, 无明, 疑)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열 가지 번뇌를 각각 설명하면서 "由親近不善丈夫, 聞非正法, 不如理作意故(及由任運失念故)"를 공통적으로 앞세우고 있다. 이는 모든 번뇌는 (1) '不善丈夫'를 '親近'하는 것, (2)'非正法'을 '聞'하는 것, (3)'不如理'하게 '作意'하는 것 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뜻한다.

『유가사지론』 권5, 8에서는 이처럼 동일하게 해석되는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는 부분이 자주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현토 양상 또한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예들은 특정 구결점의 존재 여부 및 정확한 위치 파악과 관련한 판독 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그림 3-11> 참조), 한자의 자형에 따른 구결점의 위치 변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그림 12-17> 참조), 드물게는 동일한 환경에서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구결점들의 관계를 추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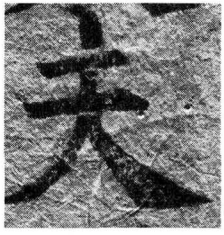
<그림 3> 夫(08: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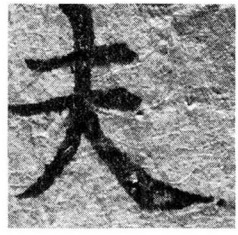
<그림 4> 夫(08:0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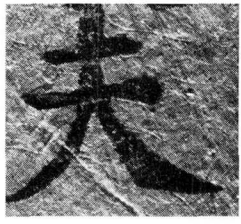
<그림 5> 夫(08: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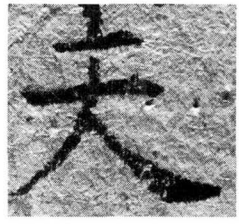

<그림 6> 夫(08:03:15)


<그림 7> 夫(08:03:20)


<그림 8> 夫(08:0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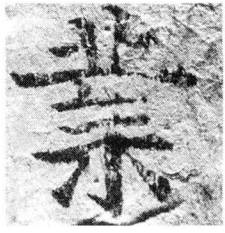

<그림 9> 夫(08:0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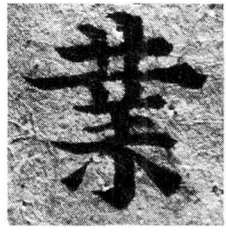

<그림 10> 夫(08:04:08)


<그림 11> 夫(08: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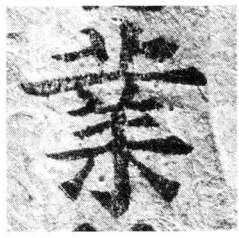
예컨대 <그림 3-11>은 (<그림 3>을 제외하면) 동일한 구결점들(34(·)과 35(·))이 찍힌 것으로 이해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구결점이 분명히 확인되는 다른 예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림 4>, <그림 7> 등에서 구겨진 자국이나 선처럼 보이는 흔적은 현토자에 의한 의도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2> 業(8:21:4-1)


<그림 13> 業(8:21:4-2)


<그림 14> 業(8:21:05)


<그림 15> 業(8:21:6-1)


<그림 16> 業(8:21:6-2)


<그림 17> 業(8:21:07)

또한 <그림 12-17>을 통해서는 '業'자와 같은 자형의 경우 구결자 'ᄉᆞ'에 대응되는 단점, 즉 24(·)이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의 위치에 현토될 수도 있고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의 위치에 현토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 구결자 "ᄉᆞ"에 대응하는 단점에 대하여[2)]

이 자료에서 35(·)은 구결자 'ㄹ'에 대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예외없이 동사구(혹은 절)가 나열되는 환경에서 현토되었다.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을 대상으로 필자가 확인한 용례들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권5> 02:07-08, 03:04-05, 03:11-13, 03:20-21, 04:14-16, 04:23-05:01, 05:01-02, 05:04, 05:05-06, 07:03, 07:04-05, 07:23-08:01, 09:06-08,

2) 이 절은 2002년 11월 2일 월례강독회에서 "『유가사지론』의 점도에서 구결자 "ᄉᆞ, ㅅㄱ"에 대응되는 단점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몇 가지 근거"라는 이름으로 배포한 논의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 자료에서 함께 논의한 구결자 'ㅅㄱ'에 대응되는 단점에 관한 것은 이후에 보완하여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하였으므로(장경준 2003ㄱ)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09:09-11, 09:13-14, 09:15-16, 09:16-17, 09:23-10:01, 10:05-06, 11:07-08, 12:05-06, 12:07-08, 12:09-10, 12:10-12, 13:04-06, 13:17-18, 14:01-02, 15:20-21, 17:21-23, 18:18-21, 18:22-23, (이상 31개)

<권8> 03:04-06, 03:08-10, 03:12-13, 03:15-16, 03:19-21, 04:01-03, 04:05-06, 04:08-10, 04:11-04:13, 04:14-16, 03:10-11, 03:13-14, 03:18-19, 03:23-04:01, 06:02-04, 10:17-18, 11:11, 11:14-15, 11:16-19, 11:21-22, 12:10-16, 13:13-14, 13:15-16, 13:21-22, 14:04-05, 15:04-05, 16:20-16:21, 17:03, 17:07, 17:09, 18:14-15, (이상 31개)

기존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구결자 'ᄒᆞ'가 쓰였고, 위의 용례들을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 35(·)의 용법이 자토구결의 'ᄒᆞ'의 용법과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해독이 어려운 나머지 용례들도 그것을 다른 구결자에 대응시킬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35(·)은 구결자 'ᄒᆞ'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부 용례에 대한 잠정적인 해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3]

<권5 09:15-16>

A: 彼衆生[22~32]處已生位[44,22]諸根圓滿[35]諸根成熟[35,51(·)]

B: 彼衆生[ㅣ]處已生位[十, ㅈ]諸根圓滿[ᄒᆞ]諸根成熟[ᄒᆞ,ㅅᄒᆞㅣ]

C: 彼 衆生ㅣ 已生位十 處(ㅅ)ㅈ 諸 根 圓滿(ㅅ)ᄒᆞ 諸 根 成熟(ㅅ)ᄒᆞㅅᄒᆞㅣ

D: 저 중생이 已生位에 처하여 모든 根이 원만하고 모든 根이 성숙하고 할 것이다.
(저 중생들이 이미 태어나서 모든 감관이 뚜렷하고 모든 감관이 성취되는 이들이다.)

3) 이 글의 판독안(A)에서는 단점의 경우 형태 표시인 (·)를 생략하였다.

<권5 11:07-08>

A: 又地[33,구결자(ㄱ)]能持[35]水[33]能爛火[33]能燒[35]風[33]能燥[35,24~15(/),42]如是等[33(/)]類[34]當知[51]外分自業差別[53,11(·\)]

B: 又地[ㄱ]能持[ㅎ]水[ㄱ]能爛火[ㄱ]能燒[ㅎ]風[ㄱ]能燥[ㅎ,ㅅㆍ,ㄴ]如是等[ㅅㄱ]類[ㄹ]當知[ㅣ]外分自業差別[ㅗ,X]

C: 又 地ㄱ 能 持(ㅅ)ㅎ 水ㄱ 能 爛(ㅅㅎ) 火ㄱ 能 燒(ㅅ)ㅎ 風ㄱ 能 燥(ㅅ)ㅎㅅㆍㄴ 是 如 等ㅅㄱ 類ㄹ 當 知ㅣ 外分自業差別ㅗX

D: 또 땅은 능히 지니고 물은 능히 문드러지게 하고 불은 능히 태우고 바람은 능히 말리고 하는 이와 같은 類를, 반드시 알지어다, 外分自業差別이라 하는 것이다.
(또 땅은 부지할 수가 있고 물은 문드러지게 할 수가 있고 불은 태울 수가 있고 바람은 말릴 수가 있나니 이와 같은 여러 가지는 바깥 부분에서 제업의 차별인 줄 알아야 한다.)

<권8 11:16-19>

A: 若彼物主[22~32] … 是[34]名[54]不與[53,35]若彼物主[22~32] … 是[34]名[54]不捨[53,35]若彼物主[22~32] … 是[34]名[54]不棄[53,35,55(·.)]

B: 若彼物主[ㅐ] … 是[ㄹ]名[ㅏ]不與[ㅗ,ㅎ]若彼物主[ㅐ] … 是[ㄹ]名[ㅏ]不捨[ㅗ,ㅎ]若彼物主[ㅐ] … 是[ㄹ]名[ㅏ]不棄[ㅗ,ㅎ,ㅇㅓㅎ]

C: 若 彼 物主ㅐ … 是ㄹ 名ㅏ 不與ㅗ(ㅅ)ㅎ 若 彼 物主ㅐ … 是ㄹ 名ㅏ 不捨ㅗ(ㅅ)ㅎ 若 彼 物主ㅐ … 是ㄹ 名ㅏ 不棄ㅗ(ㅅ)ㅎ ㅇㅓㅎ

D: 만약 그 물주가 … 이것을 일컬어 不與라 하고, 만약 그 물주가 … 이것을 일컬어 不捨라 하고, 만약 그 물주가 … 이것을 일컬어 不棄라 하고 하는 것이며

(만약 그 물건 주인이 … 이를 주지 않았다(不與)라고 하며 만약 그 물건 주인이 … 이를 베풀지 않았다(不捨)라고 하며 만약 그 물건의 주인이 … 이를 버리지 않았다(不棄)라고 한다.)

위와 같은 예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이 자료에서 35(·)은 구결자 'ᄒᆞ'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

3. 『유가사지론』 권8, 03:04-04:11 부분의 잠정 해독안

<권8 03:04-03:07>

A: 薩迦耶見[51]者[23~33]謂由親近不善丈夫[34,24]聞非正法[34,35]不如理作意[35,45(/),24,43]故[55]及由任運失念[45(/)#34(/),24,43]故[21]

B: 薩迦耶見[ㅣ]者[ㅅㄱ][4]謂由親近不善丈夫[ㄹ, ᄒᆞ][5]聞非正法[ㄹ,ᄒᆞ]不如理作意[ᄒᆞ,ㅅㄱ ㄹ?, ᄒᆞ, ᄆᆞ]故[ᄉᆞ]及由任運失念[ㅅㄱ ㄹ?, ᄒᆞ, ᄆᆞ]故[ㅅ]

C: 薩迦耶見(ㅐ)ㅣ[6]{者}(ㅅㄱ)ㅅㄱ 謂 不善丈夫ㄹ 親近(ㅅ)ᄒᆞ 非正

---

4) '者'자의 이 위치(23~33)에 현토된 단점은, 그 보다 조금 아래(33)에 위치한 구결자 'ㄱ'에 대응되는 단점과 변별되며, 구결자 'ㅅㄱ'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親近不善丈夫 聞非正法 不如理作意 故'는 이 곳을 시작으로 10번 반복되면서 동일한 현토 양상을 보이는데, 이 예의 '夫'자만 다르게 현토되어 있다.(앞의 [그림 6-11] 참조) 왜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지 알기 어려운 특이한 경우이다. 한편 이들 용례에서 '夫', '法', '意'에 각각 현토된 35(·)는 구결자 'ᄒᆞ'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6) 『유가사지론』 권5, 8에서는, 특정 어구(X)를 설명할 때 그 어구(X)에 '者'자를 붙여 문장을 시작하는 (가칭) 'X-者' 구문이 100회 이상 등장한다. 이 때 X에는 1)마지막 글자에만 51(·)이 현토되거나 2)동사구 혹은 문장의 형식으로

法乙 聞ㅋ 不如理作意(ㅅ)ㅋㅅㄱ 乙 由ㅣ(ㄱ)ㅟ{故}ㅅ 及 任運失念ㅅㄱ 乙 由ㅣ(ㄱ)ㅟ {故ㅅ}

D: 薩迦耶見이라 하는 것은, 不善丈夫를 親近하여 非正法을 듣고 不如理作意하고 하는 것을 말미암으며, 또한 任運失念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몸에 대한 고집이라 함은 착하지 못한 사람을 친근하여 바른 법이 아닌 것을 듣고서 짓는 이치답지 못한 뜻 지음과 저절로 기억을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

<권8 03:06-03:07>

A: 等隨觀執[4자합부-역독선[7]]五種取薀[34,24~15(/),42]若分別不分別[42]染汙慧[34]爲體[24,54~55(.·)]

B: 等隨觀執 五種取薀[乙,ㅅㅎ,ㄴ]若分別不分別[ㄴ]染汙慧[乙]爲體[ㅣ,ㅅㅜㅎ?]

C: 五種取薀乙 等隨觀執ㅅㅎㄴ 若 分別 不分別ㄴ 染汙慧乙 體{爲}ㅣㅅㅜㅎ

D: 五種取薀을 等隨觀執하는[8] 分別·不分別의 染汙慧를 體로 삼는 것이며

(같이 따라 살피며 다섯 가지 쌓임에 집착하나니 분별과 분별 아닌 염오의 슬기가 바탕이 된다.)

현토되더라도 마지막 글자에는 51(·)이 현토되어 있는데, 이 51(·)은 이 자료에서 다른 환경에 쓰인 경우와 이 구문에 대응하는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고려할 때 '다'의 음상을 갖는 종결어미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7) 4자합부-역독선으로 판독하였으나 '觀執'의 위쪽 부분은 분명치 않다. 원본 확인이 요청됨.

8) 뒤의 문맥까지 함께 고려해 볼 때, 현토자는 '等隨觀執'이 "그릇되고 허망한 것을 좇아 그것에 집착하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하나의 서술어로 파악하여 토를 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역경원의 해석과 크게 차이가 난다.

<권8 03:08-03:10>

A: 邊執見[51]者[23~33]謂由親近{22?}[9]不善丈夫[34,35]聞非正法[34,35]不如理作意[35,45(/),24,43]故[55]及由任運失念[45(/)#34(/),24,43]故[21]

B: 邊執見[ㅣ]者[ㅅㄱ]謂由親近不善丈夫[ㄹ,ㅎ]聞非正法[ㄹ,ㅎ]不如理作意[ㅎ,ㅇㄱㄹ?,ㅕ,ㅱ]故[ㅀ]及由任運失念[ㅇㄱㄹ?,ㅕ,ㅱ]故[ㄴ]

C: 邊執見(ㅢ)ㅣ{者}(ㅇㄱ)ㅅㄱ 謂 不善丈夫ㄹ 親近(ㅇ)ㅎ 非正法ㄹ 聞ㅎ 不如理作意(ㅇ)ㅎㅇㄱㄹ 由ㅕ(ㄱ)ㅱ{故}ㅀ 及 任運失念ㅇㄱㄹ 由ㅕ(ㄱ)ㅱ {故ㄴ}

D: 邊執見이라 하는 것은, 不善丈夫를 親近하고 非正法을 듣고 不如理作意하고 하는 것을 말미암으며, 또한 任運失念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치우친 소견이라 함은 착하지 못한 사람을 친근하여 바른 법이 아닌 것을 듣고서 짓는 이치답지 못한 뜻 지음과 저절로 기억을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

<권8 03:10-03:11>

A: 執五取蘊[34,22]爲我性[24,15~25(-)]已[15]等隨觀{미상[10]}執[15]爲斷[32~42,35]爲[24~15(/),42]常[32~42,35,지시선(/)][11]若分別[31]

---

9) 영인본에 의하면 단점이 현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자료의 특성상 원문에서 동사로 쓰인 한자에는 합부나 역독선 이외에는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반복되는 동일한 구문에서 같은 환경의 다른 예에서는 현토된 경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결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10) 역독선과 비슷한 형태이나 '역독'을 지시하는 부호로 해석하기는 힘들 듯하다.

11) 이 지시선은, 앞의 '爲'자에 현토된 구결점이 원칙적으로는 '常'자에 현토되어야 하는 것임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지시선이 그어진 한자와 그것이 가리키는 한자에 모두 토가 달려 있을 경우, 해독의 순서는 지시선이 그어진 한자에 현토된 것을 먼저 반영하고 지시선이 가리키는 한자에 현토된 것을 나중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예에서는 '常'자에 32~42(·), 35(·)를 현토한

若不分別[31,42]染汙慧爲體[24,54~55(.˙)]

B: 執五取蘊[乙,ㅋ]爲我性[ㅓ,尸][12]已[ㅁ?]等隨觀執[ホ?]爲斷[ハ,ㅋ][13]爲[ソ仝,七]常[ハ,ㅋ] 若分別[人]若不分別[人,七]染汙慧爲體[ㅓ,ソ

다음 24~15(/), 42(·)을 현토하려다 보니 '常'자의 자형상 32~42(·)와 42(·)를 함께 현토하기 어려워 'ソ仝七'에 대응하는 24~15(/), 42(·)는 '爲'자에 현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기존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이러한 환경, 즉 "{VP} 已"('VP가 지시하는 행위를 이미 하고(서는)/하여(서는)'으로 해석)인 경우에 모든 문헌에서 VP의 동사에는 '-(尸)'이 현토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례는 '15~25(-)'가 구결자 '尸' 또는 적어도 '尸'을 포함한 것에 대응되는 것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보기가 된다.

13) '斷'자와 '常'자의 왼쪽 아래에 위치한 단점을 구결자 'ハ'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게 된 근거는, 기존 자토석독구결 자료 가운데 『유가사지론』 권20에서는 '爲'자가 동사로 쓰인 구문에서 '피동'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爲'자에 구결자 'ハ'가 현토되는 경향이 강하며(50%), 이 자료에서도 그러한 경향성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예 1> ㄱ. 如是精勤修善品者 略爲四苦之所隨逐 (<유가> 권20 18: 01-02)

→ 是 如ㅊ 精勤ㅋ 善品乙 修ソ仝七 者ㄱ 略ㅋ 四苦ㅋ{之} 隨逐ノ尸 所乙 爲ハナヤセ丨

ㄴ. 彼爲如是四苦隨逐 應以七相審正觀察 (<유가> 권20 18: 07-08)

→ 彼ㄱ 是 如ㅊソㄱ 四苦ㅋ 隨逐ノ尸入乙 爲ハ;斤 七相乙 {以}ㅓ 審正觀察ノヤ{應}セソㄱリ皿

위의 <예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가사지론』 권20에서 피동으로 해석되는 '爲'자의 앞뒤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구결자 'ノ尸, (入)乙, ハ'들은, 『유가사지론』 권5, 8에서도 동일한 환경에서 각각 '(x)尸, 乙, ハ'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는 구결점들이 현토된 예들('逐'(권5 04:20), '逐'(권5 05:01), '毁'(권8 09:10) 등)의 존재를 통해 그 고유성이 재차 인정되며(다음의 <예 2> 참조), 이들 중 '피동'의 의미와 관련지을 만한 것은 아직 그 기능을 알기 어려운 'ハ' 뿐이므로, 현재의 지식으로는 '斷'자와 '常'자에 현토된 32~42(·)을 'ハ'에 대응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

<예 2> A: 爲智者[23]之所訶毁[15~25(-),34,32~42,55](<유가> 권8 09:09-10)

B: 爲智者[ㅋ]之所訶毁[(x)尸,乙,ハ,ナ]

C: 智者ㅋ{之} 訶毁ノ尸 所乙 爲ハナ

D: 智者의 訶毁하는 바가 되며

ᄒᆞᄆᆞ?]

C: 五取蘊乙 執ᄒᆞᆫ 我性 {爲}ᄒᆞᄅᆞ 已(ᄒᆞᄂᆞᆫ)ㅁ 等隨觀執(ᄂᆞᆫᄒᆞᆫ)ᄉᆞ 斷爲ㅅᄒᆞᆯ 常 爲ㅅᄒᆞᆯᄂᆞᆫᄉᆞᆫᄂᆡ 若 分別ㅅ 若 不分別ㅅᄂᆡ 染汙慧(乙) 體 {爲}ᄒᆞᄂᆞᆫᄒᆞᄆᆞ

D: 五取蘊을 執하여 我性으로 삼기를 이미 한 다음, 等隨觀執하여 斷이 되거나 常이 되거나 하는 分別 · 不分別의 染汙慧를 體로 삼는 것이며

(다섯 가지 쌓임에 집착하여 '나'의 성품을 삼은 뒤에 같이 따라 살피며 아주 없다 하기도 하고 항상 하다 라고 집착하나니 분별과 분별 아닌 염오의 슬기가 바탕이 된다.)

<권8 03:12-03:13>

A: 邪見[51]者[23~33]謂由親近不善丈夫[34,35]聞非正法[34,35]不如理作意[35,45(/),24,43] 故[21]

B: 邪見[ㅣ]者[ㅅㄱ]謂由親近不善丈夫[ㄹ,ᄒᆞᆯ]聞非正法[ㄹ,ᄒᆞᆯ]不如理作意[ᄒᆞᆯ,ᄂᆞᆫㄱ ㄹ?,ᄒᆞ,ᄆᆞ]故[ᄂᆞᆫ]

C: 邪見(ㅣ)ㅣ{者}(ᄂᆞᆫㄱ)ㅅㄱ 謂 不善丈夫ㄹ 親近(ᄂᆞᆫ)ᄒᆞᆯ 非正法ㄹ 聞ᄒᆞᆯ 不如理作意(ᄂᆞᆫ)ᄒᆞᆯᄂᆞᆫㄱ ㄹ 由ᄒᆞ(ㄱ)ᄆᆞ {故ᄂᆞᆫ}

D: 邪見이라 하는 것은, 不善丈夫를 親近하고 非正法을 듣고 不如理作意하고 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사뙨 소견이라 함은 착하지 못한 사람을 친근하여 바른 법이 아닌 것을 듣고서 짓는 이치답지 못한 뜻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권8 03:13-03:14>

A: 撥因[=34,35]撥果[34,35]或撥作用[34,35]壞[역독선]眞實事[34,35,53(/),경계선(-)]唯[32~42]用[역독선]分別染汙慧[34,24]爲體[24,54~

55(·)]

B: 撥因[乙,ᄒᆞ]撥果[乙,ᄒᆞ]或撥作用[乙,ᄒᆞ]壞眞實事[乙,ᄒᆞ,ᄉᆞᄀᆞㅗ?[14)]]
唯[ㅅ]用分別染汙慧[乙,ᄒᆞ]爲體[ᄒᆞ,ᄉᆞᄒᆞᄀᆞ?]

C: 因乙 撥(ᄉᆞ)ᄒᆞ 果乙 撥(ᄉᆞ)ᄒᆞ 或 作用乙 撥(ᄉᆞ)ᄒᆞ 眞實事乙 壞

14) 잠정적으로 53(/)을 'ᄉᆞᄀᆞㅗ'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자료에서 쌍점이나 선 등은 대체로 해당 위치의 단점이 표상하는 음상을 포함하는 좀더 긴 언어 단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해당 위치의 단점에 대응되는 구결자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구결자가 연쇄된 어형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 형태를 지닌 구결점은, 1)'ᄉᆞᄀᆞ'을 포함하면서 2)해당 현토 위치의 단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독을 시도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53(/)을 'ᄉᆞᄀᆞㅗ'에 대응되는 것으로 본 위의 가정을 전제한 채, 앞뒤의 문맥을 고려하여 D의 단계에서는 이것을 현대 국어의 "하면서/하여"로 대응시켰다. '-ᄀᆞㅗ'내지 '-ㅗ'를 연결어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기존의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관찰되는 문장 말미의 '-(ᄀᆞ)ㅗ'는, 많은 경우 종결어미로도 연결어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예> 佛言, 善男子. 是如. 汝等, 應當精勤修行如此經典, 則法久住於世. <금광 15:14-16>
→ 佛ᄀᆞ 言ㄴㅋㅁ 善男子ㅋ 是 如ᄒᆞᄉᆞㅣ 汝等ᄉᆞᄀᆞᄀᆞ 當ㅅ 此 如ᄒᆞᄉᆞ ㅋᄀᆞ 經典ㄴ 精勤修行ᄉᆞᄆᆞ{應}ᄒᆞᄉᆞᄀᆞㅗ 則ㅅ 法ㄴ 久ㅋ {於}世ㅋㅅ 住ㅅㄴㅂㅋᄀᆞㄱㅅᄒᆞᄀᆞㄴㅣㅅᄇᆞㅎㅋㅣ
위의 구결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1)부처는 말씀하시기를, "善男子야. 이와 같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경전을 (마땅히) 精勤修行할 것이다. (그리고) 곧 법이 오래도록 세상에 住하게 할 것이다'라고 (다짐)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신다.
(2)부처는 말씀하시기를, "善男子야. 이와 같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경전을 (마땅히) 精勤修行-하면서/하여 곧 법이 오래도록 세상에 住하게 할 것이다'라고 (다짐)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신다.
(1)은 'ᄉᆞᄀᆞㅗ'를 종결어미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한 결과이고, (2)는 'ᄉᆞᄀᆞㅗ'를 연결어미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이러한 예들은 석독구결 자료에 반영된 언어의 연결어미 목록에 '-(ᄀᆞ)ㅗ'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ㅅ)ᄒᆞᄂᆞᆫ ᄇᆞᆫ 唯ハ 分別染汙慧乙 {用}ᄒᆞ 體 {爲}ᄒᆞᄂᆞᆫᄃᆞᆯ

D: 因을 撥하거나 果를 撥하거나 혹 作用을 撥하거나 眞實事를 壞하거나 하면서/하여 오직 分別의 染汙慧로써 體를 삼는 것이며 (원인이 없다 하고 결과가 없다 하고 혹은 작용도 없다고 하기도 하면서 진실한 일을 무너뜨리나니 분별하는 염오의 슬기만이 바탕이 된다.)

<권8 03:15-03:16>

A: 見取[51]者[23~33]謂由親近不善丈夫[34,35]聞[역독선]非正法[34,35]不如理作意[35,45(/),24,43]故[21]

B: 見取[ㅣ]者[ㅅㄱ]謂由親近不善丈夫[乙,ᄒᆞ]聞非正法[乙,ᄒᆞ]不如理作意[ᄒᆞ,ᄂᆞᆫ 乙?,ᄒᆞ,ᄆᆞ]故[ㄴ]

C: 見取(ㅢ)ㅣ{者}(ㅅㄱ)ㅅㄱ 謂 不善丈夫乙 親近(ㅅ)ᄒᆞ 非正法乙 聞ᄒᆞ 不如理作意(ㅅ)ᄒᆞᄂᆞᆫ 乙 由ᄒᆞ(ㄱ)ᄆᆞ {故ㄴ}

D: 見取이라 하는 것은, 不善丈夫를 親近하고 非正法을 듣고 不如理作意하고 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소견의 고집이라 함은 착하지 못한 사람을 친근하여 바른 법이 아닌 것을 듣고서 짓는 이치답지 못한 뜻 지음으로 말미암아)

<권8 03:16-03:19>

A: 以[역독선]薩迦耶見[31]邊執見[31]邪見[31]及所依[31]所緣[31]所因[31]俱有相應[31]等[33(/)]法[34,24]比方[2자합부-역독선]他[23]見[34,15]等隨觀執[22]爲最[24,35]爲上[=24,35]勝妙第[35,22#22~32,53(/),경계선(-)[15],미상[16]]一[지시선(/)][17]唯[32~42]用[역독선]分別

15) 이 경계선은 아래 '一'자의 획에 걸쳐져 있는 사선이 '第'자의 아래에 위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한자의 아랫 부분에 길게 그어진 경계선은 거의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染汙慧[34,24]爲體[24,54~55(.')]

B: 以薩迦耶見[ㅅ]邊執見[ㅅ]邪見[ㅅ]及所依[ㅅ]所緣[ㅅ]所因[ㅅ]俱有相應[ㅅ]等[ㅅㄱ]法[乙,ㅣ]比方他[ㅋ]見[乙,ㅁ?]等隨觀執[ㅣ]爲敭[ㅣ,ㅎ]爲上[ㅣ,ㅎ]勝妙第[ㅎ,ㅣ#ㄹ,ㅅㄱ ㅗ?]一唯[ㅅ]用分別染汙慧[乙,ㅣ]爲體[ㅣ,ㅅㅜ分?]

C: 薩迦耶見ㅅ 邊執見ㅅ 邪見ㅅ 及 所依ㅅ 所緣ㅅ 所因ㅅ 俱有相應ㅅ 等ㅅㄱ 法乙 {以}ㅣ 他ㅋ 見乙 比方(ㅅ)ㅁ 等隨觀執(ㅅ)ㅣ 敭 {爲}ㅣㅎ 上 {爲}ㅣㅎ 勝妙第一(ㅣ)ㅎ(ㅅ)ㅣㅅㄱ ㅗ#ㄹㅎㅅㄱ ㅗ 唯ㅅ 分別染汙慧乙 {用}ㅣ 體 {爲}ㅣㅅㅜ分

D: 薩迦耶見과 邊執見과 邪見과 (및) 所依와 所緣과 所因과 俱有相應과 같은 法을 써서 남의 見을 比方하고, (그것을) 等隨觀執하여 敭로 삼거나 上으로 삼거나 勝妙第一로 삼거나(#이거나) 하면서/하여 오직 分別의 染汙慧로써 體를 삼는 것이며
(몸에 대한 고집, 치우친 소견, 사뭔 소견이며 의지하는 바와 반연할 바와 원인하는 바와 함께 있음과 서로 응함 따위의 법으로써 다른 소견과 견주되어 같이 따라 살피면서 우두머리라 하고 으뜸이라 하고 훌륭하고 미묘하여 첫째라고 하며 집착하나니 분별하는 염오의 슬기만이 바탕이 된다.)

<권8 3:19-03:21>

A: 戒禁取[51]者[23~33]謂由[역독선]親近[2자합부-역독선]不善丈夫

16) 이 부호는 특정한 한 점에서 시작하여 점점 약해지면서 바깥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정한 한 점에서 시작되고 그 점이 해독상 필요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잘못 현토된 단점이므로 제거하라'는 표시를 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분명치 않아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17) 이 지시선도 '원칙적으로는 여기에다 토를 달아야 하지만 윗 글자를 빌어 거기에다 토를 단다'는 것을 지시하기 위해 그은 것으로 보인다.

[34,35]聞非正法[34,35]不如理作意[35,45(/),24,43]故[21]

B: 戒禁取[ㅣ]者[ㄱ]謂由親近不善丈夫[乙,ㅋ]聞非正法[乙,ㅋ]不如理作意[ㅋ,ㅅㄱ 乙?,ㅑ,ㅱ]故[ㅅ]

C: 戒禁取(ㅛ)ㅣ{者}(ㅅㄱ)ㅅㄱ 謂 不善丈夫乙 親近(ㅅ)ㅋ 非正法乙 聞ㅋ 不如理作意(ㅅ)ㅋㅅㄱ 乙 由ㅑ(ㄱ)ㅱ {故ㅅ}

D: 戒禁取라 하는 것은, 不善丈夫를 親近하고 非正法을 듣고 不如理作意하고 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계금에 대한 고집이라 함은 착하지 못한 사람을 친근하여 바른 법이 아닌 것을 듣고서 짓는 이치답지 못한 뜻 지음으로 말미암아)

<권8 03:21-04:01>

A: 卽於彼見[31]彼見[44]隨行[33(/)]若戒[31]若禁[31]及所依[31]所緣[31]所因[31]俱有相應[31]等[33(/)]法[44]等隨觀執[22]爲淸淨[24,35]爲解脫[24,35]爲出離[24,35,53(/)]唯用分別染汙慧[34,24]爲體[24,54~55(.)]

B: 卽於彼見[ㅅ]彼見[十]隨行[ㅅㄱ]若戒[ㅅ]若禁[ㅅ]及所依[ㅅ]所緣[ㅅ]所因[ㅅ]俱有相應[ㅅ]等[ㅅㄱ]法[十]等隨觀執[ㅈ]爲淸淨[ㅑ,ㅋ]爲解脫[ㅑ,ㅋ]爲出離[ㅑ,ㅋ,ㅅㄱ ㅗ?]唯用分別染汙慧[乙,ㅑ]爲體[ㅑ,ㅅㅎ?]

C: 卽 {於}彼見ㅅ 彼見十 隨行ㅅㄱ 若 戒ㅅ 若 禁ㅅ 及 所依ㅅ 所緣ㅅ 所因ㅅ 俱有相應ㅅ 等ㅅㄱ 法十 等隨觀執(ㅅ)ㅈ 淸淨 {爲}ㅑㅋ 解脫 {爲}ㅑㅋ 出離 {爲}ㅑㅋㅅㄱ ㅗ 唯 分別染汙慧乙 {用}ㅑ 體 {爲}ㅑㅅㅎ

D: 彼見과 彼見에 隨行하는 戒와 禁과 (및) 所依와 所緣과 所因과 俱有相應과 같은 法에 대해서, (그것을) 等隨觀執하여 淸淨으로 삼거나 解脫로 삼거나 出離로 삼거나 하면서/하여 오직 分別의 染汙慧로써 體를 삼는 것이며

(그의 소견과 그의 소견으로 따라 행하는 계율과 금제와 의지하는 바와 반연할 바와 원인하는 바와 함께 있음과 서로 응함 따위의 법에 대하여 같이 따라 살피며 깨끗해진다 하고 해탈한다 하고 뛰어난다 하며 집착하나니 분별하는 염오의 습기만이 바탕이 된다.)

<권8 04:01-03>

A: 貪[51]者[23~33]謂[33(·)]由親近[2자합부-역독선]不善丈夫[34,24]聞非正法[34,35#35(·.)[18]] 不如理作意[35,45(/),24,43]故[55]及由任運失念[45(/),24,43]故[21]

B: 貪[ㅣ]者[ㅅㄱ]謂[ㄱ]由親近不善丈夫[ㄹ,ㅎ]聞非正法[ㄹ,ㅎ]不如理作意[ㅎ,ㅺㄱ ㄹ?,ㅔ,ㅱ]故[ㅀ]及由任運失念[ㅺㄱ ㄹ?,ㅔ,ㅱ]故[ㄴ]

C: 貪(ㅐ)ㅣ{者}(ㅺㄱ)ㅅㄱ 謂ㄱ 不善丈夫ㄹ 親近(ㅺ)ㅎ 非正法ㄹ 聞ㅎ 不如理作意(ㅺ)ㅎㅺㄱ ㄹ 由ㅔ(ㄱ)ㅱ{故}ㅀ 及 任運失念ㅺㄱ ㄹ 由ㅔ(ㄱ)ㅱ {故ㄴ}

D: 貪이라 하는 것은, 不善丈夫를 親近하고 非正法을 듣고 不如理作意하고 하는 것을 말미암으며, 또한 任運失念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탐냄이라 함은, 착하지 못한 사람을 친근하여 바른 법이 아닌 것을 듣고서 짓는 이치답지 못한 뜻지음과 저절로 기억을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

---

18) 영인본에 의하면 35 위치에 역사선 방향의 쌍점이 현토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복되는 동일한 구문에서 같은 환경의 다른 예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없으며, 이 자료 전체적으로도 35(·.)로 의심할만한 다른 예는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5 위치에서 관찰되는 두 점 가운데 하나는 각필에 의한 인위적인 구결점이 아니거나 잘못 현토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B 이하에서는 35(·)으로, 즉 'ㅎ'에 대응하는 단점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권8 04:03-05>

A: 於外[31]及內[31,42]可愛境界[44,24~15(/),42]若分別[31]不分別[31,42]染著[34]爲體[24,54~55(.)]

B: 於外[ㅅ]及內[ㅅ,七]可愛境界[十,ㅅ亽,七]若分別[ㅅ]不分別[ㅅ,七]染著[乙]爲體[ㅣ,ㅅ王ㅎ?]

C: {於}外ㅅ 及 內ㅅ七 可愛境界十ㅅ亽七 若 分別ㅅ 不分別ㅅ七 染著乙 體 {爲}ㅣ ㅅ王ㅎ

D: 밖과 안(과)의 可愛境界에 있는[19] 分別·不分別의 染著을 體로 삼는 것이며

(바깥과 안의 사랑할 만한 경계에 대하여서이니, 분별과 분별 아닌 집착이 바탕이 된다.)

<권8 04:05-06>

A: 恚[51]者[23~33]謂由親近[2자합부-역독선]不善丈夫[34,24]聞非正法[34,35]不如理作意[35,45(/)#45[20],24,43]故[55]及由[역독선]任運

---

19) 이 예의 "-十 ㅅ亽七"에서 분석되는 동사 어간 'ㅅ-'의 의미는 원문이나 앞뒤의 구결문을 통해서는 명시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문맥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에 있는"으로 옮겨 보았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ㅅ-'의 의미기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예들은 대체로 "있다(存在)"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 彼, 於戱論界 易可安住 謂於世間一切種淸淨, 於無戱論界 難可安住 謂於出世間一切種淸淨. (<유가> 권20:13-16)

→ 彼ㄱ {於}戱論界ㅋ十 易ㅎ 安住ㅅ亽{可}七ㅅㄱㅗ 謂ㄱ {於}世間七 一切種淸淨ㅋ十ㅅ尸矣ㅎ {於}無戱論界ㅋ十ㄱ 難ㅣ 安住ㅅ亽{可}七ㅅㄱㅗ 謂ㄱ {於}出世間一切種淸淨ㅋ十ㅅ尸矣ㅣ

(그는 戱論界에서 쉽게 안주할 수 있-다./으니, 이른바 世間의 一切種淸淨에 있는 것이며, 無戱論界에서는 어렵게야 안주할 수 있-다./으니, 이른바 出世間一切種淸淨에 있는 것이다.)

失念[45(/)#45[21],24,43]故[21]

B: 恚[ㅣ]者[ㅅㄱ]謂[ㄱ]由親近不善丈夫[乙,ㅋ]聞非正法[乙,ㅋ]不如理作意[ㅋ,ㅅㄱ乙?,ㅔ,ㅱ]故[分]及由任運失念[ㅅㄱ乙?,ㅔ,ㅱ]故[ㅅ]

C: 恚(ㅢ)ㅣ{者}(ㅅㄱ)ㅅㄱ 謂 不善丈夫乙 親近(ㅅ)ㅋ 非正法乙 聞 ㅋ 不如理作意ㅋㅅㄱ乙 由ㅔ(ㄱ)ㅱ{故}分 及 任運失念ㅅㄱ乙 由 ㅔ(ㄱ)ㅱ {故ㅅ}

D: 恚라 하는 것은, 不善丈夫를 親近하고 非正法을 듣고 不如理作意하고 하는 것을 말미암으며, 또한 任運失念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성냄이라 함은 착하지 못한 사람을 친근하여 바른 법이 아닌 것을 듣고서 짓는 이치답지 못한 뜻지음과 저절로 기억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권8 04:07-08>

A: 於外[31]及內[31,42]非愛境界[44,24~15(/),42]若分別[31]不分別[31,42]憎恚[34]爲體[24,54~55(.)[22]]

B: 於外[ㅅ]及內[ㅅ,ㄴ]非愛境界[十,ㅅ仝,ㄴ]若分別[ㅅ]不分別[ㅅ,ㄴ]憎恚[乙]爲體[ㅔ,ㅅ王分?]

C: {於}外ㅅ 及 內ㅅㄴ 非愛境界十ㅅ仝ㄴ 若 分別ㅅ 不分別ㅅㄴ

---

20) 영인본에 의하면 45 위치에 점이 하나 분명히 보이고 그 점을 끝으로 하는 사선의 흔적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러나 같은 환경의 다른 예들과의 동형성을 고려하여 B 이하에서는 45(/)으로, 즉 'ㅅㄱ乙?'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1) 이 경우도, 앞의 '意'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인본에 의하면 45 위치에 사선의 흔적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만 다른 예들과의 동형성을 고려하여 B 이하에서는 45(/)으로, 즉 'ㅅㄱ乙?'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2) 사진 상으로는 한 점이 부푸라기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나, 다른 예들과의 동형성을 고려하면 그 존재를 확신할 수 있다.

憎恚乙 體 {爲}ᄒᆞᄂᆞᆫᄃᆞᆫ

D: 밖과 안(과)의 非愛境界에 있는 分別·不分別의 憎恚를 體로 삼는 것이며

(바깥과 안의 사랑스럽지 않은 경계에 대하여서이니, 분별과 분별 아닌 미워함이 바탕이 된다.)

<권8 04:08-11>

A: 慢[51]者[23~33]謂[33]由親近[2자합부-역독선]不善丈夫[34,24]聞非正法[34,35] 不如理作意[35,45(/),24,43]故[55]及由[역독선]任運失{31~41?,33~34}[23]念[45(/),24,43,31?[24]]故[21]{51~52}[25]

B: 慢[ㅣ]者[ㅅㄱ]謂[ㄱ]由親近不善丈夫[ㄹ,ᄒᆞ]聞非正法[ㄹ,ᄒᆞ]不如理作意[ᄒᆞ,ᄂᆞᆫㄱ ㄹ?,ᄋᆞ,ᄆᆞ]故[ᄉᆞ]及由任運失念[ᄂᆞᆫㄱ ㄹ?,ᄋᆞ,ᄆᆞ]故[ㄴᆞ]

C: 慢(ㅐ)ㅣ{者}(ᄂᆞᆫ)ㅅㄱ 謂 不善丈夫乙 親近(ᄂᆞ)ᄒᆞ 非正法乙 聞ᄒᆞ 不如理作意(ᄂᆞ)ᄒᆞᄂᆞᆫㄱ 乙 由ᄋᆞ(ㄱ)ᄆᆞ{故}ᄉᆞ 及 任運失念ᄂᆞᆫㄱ 乙 由ᄋᆞ(ㄱ)ᄆᆞ {故ㄴᆞ}

D: 慢이라 하는 것은, 不善丈夫를 親近하고 非正法을 듣고 不如理作意하고 하는 것을 말미암으며, 또한 任運失念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난 체라 함은 착하지 못한 사람을 친근하여 바른 법이 아닌 것을 듣고서 짓는 이치답지 못한 뜻지음과 저절로 기억을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

---

23) 여기 보이는 점들은, '失'자가 구결점이 현토될 환경이 아니라는 점, 다른 예들과의 동형성 등을 고려할 때 인위적인 구결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24) 영인본에는 31(·)로 판독할 만한 점이 관찰되나 이 또한 인위적인 구결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25) 영인본에는 51~52(·)로 판독할 만한 점이 관찰되나 이 또한 인위적인 구결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권8 04:10-11>

A: 於外[31#31(.·)[26]]及內[31,42]高下勝劣[4자합부선,44,24~15(/),42]若分別[31]不分別[31,42]高擧[34]爲體[24,54~55(.˙)]

B: 於外[亻]及內[人,七]高下勝劣[十,丷今+,七]若分別[亻]不分別[人,七]高擧[乙]爲體[氵,丷干?]

C: {於}外人 及 內人七 高下勝劣十丷今七 若 分別人 不分別人七 高擧乙 體 {爲}氵丷干

D: 밖과 안(과)의 高下勝劣에 있는 分別·不分別의 高擧를 體로 삼는 것이며

(바깥과 안의 높고 낮고 훌륭하고 못나고 하는 데 대하여서이니, 분별과 분별 아닌 높은 체함이 바탕이 된다.)

참고문헌

南豊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韓國書誌學會, pp.5-45.

尹幸舜(2001), 「한국의 부호구결과 일본의 오코토점에 대하여」, 일본 북해도대학 워크샵 발표논문집, pp.91-106.

김영욱(2001),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57-77.

李丞宰(2001), 「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李珖鎬先生 回甲紀念論叢), 태학사, pp.229-250.

李丞宰·安孝卿(2002),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9, 口訣學會,

26) 영인본에 의하면 31 위치에 사선 방향의 쌍점이 현토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복되는 동일한 구문에서 같은 환경의 다른 예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없으며, 이 자료 전체적으로도 31(.·)로 의심할만한 다른 예는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B 이하에서는 31(·)으로, 즉 '人'에 대응하는 단점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pp.115-145.
장경준(2002), 「구결점(口訣點)의 위치 변이에 대한 기초 연구-『유가사지론』 권5,8을 대상으로-」, 『국어사 자료 연구』 3, 국어사자료학회, pp.5-30.
_____(2003ㄱ), 「점토석독구결에서 구결자 'ㅅㄱ'에 대응되는 구결점에 대하여-『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19, 한국어학회, pp.227-247.
_____(2003ㄴ),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판독 및 해독 결과 기록 방안-『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제28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pp.111-12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2동 중산마을 대우아파트 809동 706호〕
E-mail: verdulo@hanafos.com
접수일자: 2003. 07. 10.
게재결정: 2003. 08. 02.

A Study on the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s Point-attached Seokdokkugyol(點吐釋讀口訣)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oint-attached Seokdokkugyol in vol.Ⅷ, 03:04-04:11-

Chang, Kyong-jun

This paper briefly introduces a method of study of the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s point-attached seokdokkugyol(點吐釋讀口訣), and argued that the kugyolpoints(口訣點) in the shape of singlepoint(單點) which laid on 35 location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y are corresponded to the kugyolcharactor(口訣字) 'ㅋ', and described in detail a tentative interpretation of the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s point-attached seokdokkugyol in vol.Ⅷ, 03:04-04:11.

*Key words: the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 point-attached seokdokkugyol(點吐釋讀口訣), kugyolpoint(口訣點)